

광주FC, 2천247일만에 전북戰 승전보



광주FC 이견희가 지난 24일 열린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팀이 1대0으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 썬기 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이순민 '결승골'·이견희 '썬기 골' 2대0 완승



프로축구 광주 FC가 난적 전북 현대를 상대로 6년 만에 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지난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과 하나원큐 K리그 2023 19라운드 홈경기에서 이순민의 결승 골과 후반 추가시간 터진 이견희의 썬기 골을 앞세워 2-0으로 이겼다.

2017년 4월 30일 1-0 승리 이후 2천247일만의 값진 승전보다. 휴식기 후 첫 경기에서 승리한 광주는 6경기(4승 2무) 무패를 이어갔다.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거둔 FA컵 16강전 승리(1-0)까지 더하면 7경기(6승 2무) 무패를 기록 중이다.

초반 경기의 흐름을 잡은 광주는 전북을 압박했고, 19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두현석의 후반 크로스를 이순민이 백헤더로 마무리한 것이 전북 골망을 흔들었다.

올 시즌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이순민의 마수결이 골이자 K리그 통산 4호 골이었다.

기세를 탄 광주가 경기 분위기를 가져왔다. 김한길의 전반 33분 시도한 왼발 갑아차기 슈팅은 골문 위로 살짝 넘어갔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전북이 조규성, 송민규를 교체해 추격의 고삐를 죄자, 광주는 엄지성을 투입, 공격에 불을 더 붙였다.

1-0 리드 중인 광주는 전북을 더 압박했다. 후반 15분 토마스의 왼발 슈팅은 김정훈 선방에 막혔다.

광주가 추가골에 성공하는 듯했다. 후반 22분 토마스가 왼쪽에서 넘겨준 팽볼 크로스를 김한길이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 판독(VAR) 결과 앞선 상황에서 정호연이 파울을 범한 것으로 나타나 득점이 취소됐다.

아쉬움을 뒤로 한 광주는 후반 29분 두현석의 프리킥에 의한 티모의 다이빙 헤더가 골문을 외면했다.

후반 막판 이견희와 이상기를 투입, 전북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맞불로 대응하던 광주는 결국 후반 추가시간 이견희의 오른발 터닝 슈팅 골로 승부에 썬기를 박았다. /박희중기자

광주시체육회, 상무대 육군보병학교 국군장병위문

'호국보훈' 참뜻 되새겨

광주시체육회가 호국보훈의 답을 맞아 장성군 소재 상무대 육군보병학교를 찾아 국군장병들을 위문했다. 광주시체육회는 25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 23일 육군보병학교가 있는 상무대를 방문해 위문금과 스포츠용품 전달하고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체육회 임직원들은 상무대 견학과 보병학교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장병들을 만나는 간담회를 통해 국민 보호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에서 준비한 위문금과 스포츠용품 외에 광주시축구협회와 광주시테니스협회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스포츠용품 기증에 동참해 주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박희중기자



전갑수 체육회장은 "호국영웅들께서 힘들게 이룩한 자유와 평화의 큰 보호막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자주국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국군장병들께 존경을 표한다"며 "건강하고 의미 있는 군 생활을 하는데 체육회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25일 열린 '위더스제약 2023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에 등극한 김민재(왼쪽)와 23일 금강장사에 오른 최정만이 황스토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KIA, '1천500타점 신기록' 최형우에 '황금 배트' 선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KBO 리그 최초로 1천500타점을 달성한 외야수 최형우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KIA는 지난 2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진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앞서 최형우의 1천500타점 달성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상식에서 최준영 대표이사는 최형우에게 기념 황금 배트를 전달했고, 심재학 단장은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사진)

최형우는 지난 20일 대전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홈런 포를 쏘아 올려 리그 최초로 1천500타점을 달성했고, 동시에 역대 최다 타점 기록도 경신했다.

한편, 최형우는 25일 홈경기에서 앞서 팬들에게 음료 1천500잔과 기념 워터 보틀 1천500개를 증정했다.

최형우는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큰 사랑을 보내주신 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선수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희중기자



광주체고 조수혜 화랑기 양궁 2관왕

양궁 유망주 경연 무대인 화랑기 제4회 전국시도대항 양궁대회에서 광주체고 3학년 조수혜(사진)가 혼성 단체전과 여자 개인전 2관왕에 올랐다.

조수혜는 지난 24일 임실 국제양궁장에서 끝난 고등부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팀 후배 남지현(광주체고)에게 6-2로 승리해 대회 2연패를 이뤄냈다.

또 최우진과 함께 광주 대표로 나선 고등부 혼성 단체전에서도 대전(김보경·박은성)을 6-0으로 완파하고 우승, 2관왕을 달성했다.

조수혜는 지난 10일 막을 내린 2023 아시아양궁연맹(WAA) 아시아컵 3차 대회에서 리키브 여자 단체전 금메달 획득에 기여한 바 있다.

고등부 남자 개인전에서는 박재형(인천체고)이 김중우(경기체고)를 6-0으로 꺾고 우승했다. /연합뉴스



제77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400m에서 라이벌 김지은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한정미.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광주시청 한정미, 女 400m 을 시즌 3관왕

전국육상선수권 우승...전남체고 이다원 U-18 100m 대회新

광주시청 한정미가 올 시즌 여자 400m 3관왕을 차지했다. 한정미는 지난 24일 정선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400m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달 제5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와 2023 예천 KTF 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우승에 이은 시즌 3관왕이다.

한정미는 이날 대회 여자 400m 예선에서 57초49로 조 1위를 한 뒤 결승에서 55초95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는 김지은(전북개발공사·56초27), 3위는 이아영(광양시청·56초78)이 차지했다.

특히 한정미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10개 대회 400m를 석권한 김지은을 결승에서 세 차례나 꺾으며 국내 1인자로 부상했다.

KBS배에서 김지은(57초28)을 제치고 57초00으로 우승했던 한정미는 2023 예천 KTF 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도 55초98의 기록으로 김지은(56초52)을 제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며 독주체제를 굳혔다.

김지은은 지난해 4월 제5회 전국중

별육상경기선수권 우승을 시작으로, 5월4일 전국실업대회, 5월 24일 익산실업대회, 6월2일 KBS배, 6월22일 전국육상선수권, 8월30일 전국실업 챔피언십, 9월6일 전국실업단체대회에 이어 전국체전 등 10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최강자다.

여자 포환던지기 결선에서는 목포시청 정소은이 15m를 던져, 정유선(안산시청·16m80)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같이 열린 18세 이하 육상경기대회 여자 100m 결선에서는 이다원(전남체고)이 12초17의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박희중기자

김민재 '백두장사' 2연패 최정만 '금강장사' 2연패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가 위더스제약 2023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140kg이하) 2연패를 달성했다.

김민재는 25일 강릉 단오제 행사장 씨름장에서 열린 대회 백두장사 결정전(6판 3승제)에서 정창조(수원시청)를 3-0으로 꺾고 황소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민재가 세 판 모두 들매지기를 성공하며 손쉽게 우승했다.

김민재는 대회 2연패를 이뤘고, 개인 통산 5번째 백두장사에 올랐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열린 금강장사(90kg 이하) 결승전(6판 3승제)에서는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이 임태혁(수원시청)을 3-2로 누르고 우승했다.

그는 첫판을 안다리로 가져왔으나 두 번째 판과 세 번째 판을 연거푸 내주며 벼랑 끝에 몰렸다.

최정만은 네 번째 판에서 뒤집기로 임태혁을 누리며 균형을 맞췄고, 마지막 다섯번째 판에서 잡채기에 성공하며 황소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단오대회 금강장사에 올랐다. 아울러 개인 통산 18번째 금강장사에 등극했다. /연합뉴스

AI페퍼스 아헨 김 신임 감독 "개인 사정" 4개월 만에 사퇴

당분간 이경수 수석코치가 훈련 지휘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의 아헨 김(37·사진) 신임 감독이 부임 4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놨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25일 "아헨 김 감독은 최근 가족과 관련한 개인 사정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아헨 김 감독은 24일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당분간 팀 훈련은 이경수 수석코치가 맡을 예정이고, 빨리 새로운 감독을 찾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글계 미국인인 아헨 김 감독은 지난 2월 페퍼저축은행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돼 화제를 모았다.

그는 3월 입국해 프로배구 V리그를 관전하며 분위기를 익혔다.

아헨 김 감독은 자유계약선수(FA) 영입, 아시아쿼터,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등을 지휘하며 새 시즌 준비에 몰두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헨 김 감독은 부임 4개월, 입국 3개월 만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국내 지도자 활동을 포기했다. 아헨 김 감독은 단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으며 팀 훈련 역시 한 달 정도만 지휘했다.

페퍼저축은행은 배구장 안팎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자유계약선수(FA) 박정아를 영입한 뒤 보호선수로 주전 세터 이고은을 한국도로공사에 내줬다가 다시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촌극을 펼쳤다. /연합뉴스

